

# 한 학기 한 권 읽기 독서 활동지

작성 이강휘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 교사)



## 열다섯에 곰이라니 2

추정경 장편소설

주제어: 사춘기, 동물화, 판타지, 가족애, 우정

## • 책 소개

‘사춘기의 동물화’라는 재미난 설정의 성장소설 『열다섯에 곰이라니』는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길고도 어두운 사춘기의 터널을 함께 지나는 부모님과 선생님 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은 작품이다. 2024년 부산시 올해의 책 선정을 비롯해 여러 기관의 추천 도서로 선정되며 작품성까지 인정받은 『열다섯의 곰이라니』가 출간 2년 반만에 그 두 번째 이야기로 돌아왔다. ‘다시’ 별꼴오소리가 되어버린 영웅, 그런 아들을 따라 동물이 된 ‘갱년기 엄마’, ‘아직은’ 입만 새부리로 변한 잣까마귀 섬, 철조망을 넘어 남조선으로 온 ‘북한 꽃제비’ 남매 등 1편보다 더 진화된 사춘기 동물들의 이야기가 옴니버스식으로 펼쳐진다. 1편과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지만 캐릭터 각각의 사연이 개별적으로 전개되는 구성이라 전편을 읽지 않은 독자들도, 긴 호흡의 읽기물이 부담스러운 독자들도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작품이다.

## • 학습 목표

- ① 소설 속 인물 및 설정의 상징적 의미를 분석할 수 있다.
- ② 소설과 자신의 경험을 연관 지어 읽으며 소설 내용을 내면화할 수 있다.
- ③ 소설에 제시된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개선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 학습 계획

차시	단계	활동 내용
1	읽기 전 활동	생각 열기
2	읽기 활동	제주 푸른 바다의 청해 1. (사실적 읽기) 등장인물 파악하기 2. (추론적 읽기) 상징적 의미 파악하기 3. (사실적 읽기) 표현 방법 파악하기 4. (창의적 읽기) 매체를 활용하여 읽기
3		또, 벌꿀오소리 ~ 갯년기에도 봄은 오는가 1. (참고) ‘열다섯에 곰이라니 1’ 내용 파악하기 2. (감상적 읽기) 자기 삶과 연관 지어 읽기 3. (추론적 읽기) 상징적 의미 파악하기 4. (감상적 읽기) 자기 삶과 연관 지어 읽기
4		자아아아앗 까마아아아귀 1. (사실적 읽기) 내용 파악하기 2. (추론적 읽기) 등장인물의 이름의 상징성 파악하기 3. (추론적 읽기+비판적 읽기) 인물 행동의 상징성 파악하기 + 인물 행동의 비판하기 4. (감상(비판)적 읽기+사실적 읽기) 등장인물의 말에 평가하기 + 내용 파악하기
5		설악산 특수 동물화 캠프 1. (사실적 읽기) 내용 파악하기 2. (감상적 읽기) 관련 경험 떠올리기 3. (추론적 읽기) 설정의 상징성 파악하기
6		북조선 잣까마귀 남매1 1. (사실적 읽기) 내용 파악하기 2. (창의적 읽기) 매체를 활용하여 읽기 3. (창의적 읽기) 관련 작품과 연계하여 읽기 4. (창의적 읽기) 매체를 활용하여 읽기
7		북조선 잣까마귀 남매2 1. (사실적 읽기) 어휘 파악하기 2. (감상적 읽기) 인물의 입장에 공감하며 읽기 3. (감상적 읽기) 소설 내용 내면화하기 4. (감상(비판)적 읽기) 인물의 행동 평가하기
8		모두의 인간화 ~ 에필로그 II 평성 1. (사실적 읽기) 어휘 파악하기 2. (참고) 돌고래 특성 파악하기 3. (감상적 읽기) 작품 내용 내면화하기 4. (추론적 읽기) 소재목의 상징적 의미 추론하기
9		읽기 후 활동

※ 다음 글과 영상을 보고 물음에 답해봅시다.

- ▶ 참고 동영상 1: 수온 상승으로 제주 바다가 죽어가고 있다 | 붉은 지구 2부 침묵의 바다  
[https://www.youtube.com/watch?v=Z9F\\_o51B6Rs](https://www.youtube.com/watch?v=Z9F_o51B6Rs)
- ▶ 참고 동영상 2: [다큐인사이트 4K 선공개] 끝없는 자원의 보고 푸른 바다는 더 이상 없다! | 기후변화 특별 기획 붉은 지구 2부 침묵의 바다  
[https://www.youtube.com/watch?v=D2H\\_9ck8L3A](https://www.youtube.com/watch?v=D2H_9ck8L3A)

### 지도 TIP

참고 동영상 1은 본영상이고, 참고 동영상 2는 압축 영상입니다. 수업 시간을 고려해 활용하시면 됩니다.

제주 바다는 점점 빛을 잃어가는 것이 느껴졌다. 스쳐 지나가는 관광객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겠지만 매일같이 바다를 드나들던 외할머니는 그 변화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다.

“청해야, 곱닥헌 제주 바당이 죽어지켜서 조들아점저. 잘도 모섭다이(청해야, 예쁜 제주 바다가 죽어가서 걱정돼. 아주 무섭구나).”

외할머니의 말처럼 해가 갈수록 무서운 속도로 푸른 바닷속 암반의 색이 하얗게 변해갔다. 바닷속의 푸른 숲과도 같았던 모자반이 사라지면서 이웃하던 미역과 툇도 자취를 감췄다. 모자반과 미역을 집으로 삼던 성계와 소라, 전복, 물고기 들도 사라지며 제주 바다는 황폐한 바다가 되었다.

언젠가 외할머니네 텃밭이 불타고 난 뒤 벌레와 조그만 동물이 사라지고 단 한 번도 꽃이 피지 않았던 것처럼 이곳도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으리란 생각이 들었다.

꽃밭에 불을 지른 것도 사람이었고, 바다에 공업용 폐기물을 들이부은 것도 사람이었다. 인간이 버린 쓰레기와 오폐수가 바다를 병들게 하고 그 안의 생명들을 서서히 죽이고 있다는 걸, 바다 곁에서 매일 함께하는 이들은 알고 있었던 모양이다.

인간을 태어나게 한 것이 바다였음에도 정작 그 바다를 죽음으로 이끄는 것은 인간이라니. 그래서 지금의 바다가 삭막하고 텅 빈 공간처럼 느껴지는 게 아닐까.

1. 영상에서 제시된 제주 바다가 겪고 있는 문제점을 정리해 봅시다.

---



---



---



---



---



---

2. 영상을 보고 난 후 느낀 점을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

---

---

---

**지도 TIP**

영상 외에 제주 바다가 겪고 있는 문제점을 조사하고 발표하는 모둠 활동을 후속 활동으로 연계해도 좋습니다.

※ 다음 영상을 보고 물음에 답해봅시다.

- ▶ 참고 동영상: 불만 가득한 청소년기 아이들의 특징과 도움이 안 되는 부모의 행동  
<https://www.youtube.com/watch?v=BkCGrzOjmgM&t=82s>

3. 영상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기의 특징에 대해 정리해 봅시다.

---

---

---

---

4. 영상에서 제시된 내용 중 가장 공감되는 부분과 그 이유, 공감되지 않는 부분과 그 이유를 정리하고 친구들과 이야기 나눠봅시다.

▶ 공감되는 부분과 그 이유:

---

---

---

▶ 공감되지 않는 부분과 그 이유:

---

---

---

1. 등장인물의 이름과 동물화된 동물을 연결해 봅시다.

청해 ·

· 감성돔

미도 ·

· 돌돔

중도 ·

· 돌고래

2. 다음 영상을 참고하여 <보기>의 밑줄 친 의미가 지닌 상징적 의미에 대해 정리해 봅시다.

▶ 참고 동영상: [일타강사] 10대 때 반드시 해야 하는 정서적 독립 '사춘기',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일 뿐, MBC 230308 방송

<https://www.youtube.com/watch?v=FO1bFrHH5jQ>

### <보기>

아빠가 깊은 곳으로 들어오자 청해는 주둥이로 아빠의 어깨를 툭 밀며 말했다.

“아빠, 더 들어오지 마. 나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청아야, 기다려. 구조대 오면 수족관으로 옮겨줄게.”

그 말에 청아가 크게 고개를 내저었다. 어차피 수족관이라고 해도 가족들과 24시간 함께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어떤 곳이든 이 바다보다 나은 게 없다.

언젠가 됐든 사람으로 돌아온다고 했으니 그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될 일이라 믿기로 했다. 게다가 돌고래가 된 이후 어제까지 흐리게만 보이던 바다가 투명하고 맑게 보였다. 어떤 필터를 끼운다 해도 이보다 아름다운 바다 풍경을 담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바다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고 변한 것은 오직 돌고래인 자신뿐인데도 세상이 바뀌었다. 짙은 먹물과도 같은 불행에 시간이라는 깨끗한 물을 부으면 결국 모든 것이 희미해진다던가. 돌고래가 된 불행에 바다라는 거대한 물을 섞자 조금 전까지의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졌다. 불행의 농도가 바뀌었다. 청해가 더 깊은 바다로 나아가자 멀리서 청해의 이름을 부르는 아빠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가 점점 작아져 사라진 뒤 청해는 비로소 혼자가 되었다.

---



---



---



---



---

3.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해봅시다.

〈보기1〉

비유란 표현하고자 하는 관념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 나타내는 표현 방법이다. 이때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이나 사상을 원관념이라 하고,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 빌려온 대상이나 사상을 보조관념이라 하는데,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에는 반드시 유사성이 존재해야 한다. 문학작품에서 특히 많이 쓰이는 비유는 작품 속의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화함으로써 의미와 정서를 확대하고 생동감을 제공한다.

〈보기2〉

청해 앞으로 몰려온 물고기들은 흥해가 갈라지듯 요리조리 청해의 주둥이를 쏙 빠져나갔다.

“봤지, 난 돌고래로선 구제 불능이라니까.”

“삐이이이.”

9회 말 2아웃 타석에 들어선 타자와 여전히 포기하지 않은 응원단장을 보는 것 같았다. 지칠 줄 모르는 녀석의 성화에 포기하려던 마음이 무안해질 정도였다. 집에 가서 발 닦고 잠이나 자려는 청해와 오늘 끝을 보겠다는 씨돌이의 팽팽한 대립이 계속됐다.

녀석이 빙글빙글 돌며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듯하더니 주변에 있던 모자반을 입으로 뜯어 청해 앞에 가지고 왔다. 이거라도 먹으라는 뜻인가 싶었는데, 그 모자반을 청해의 머리 위에 살며시 내려놓고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는 이내 아래로 가라앉는 모자반을 향해 지그재그로 다가가 순식간에 낚아채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아무래도 어린 돌고래를 가르치듯 쉬운 단계부터 차근차근 가르치려는 모양이었다. 멈추고 서는 법, 방향을 전환하는 법, 한입에 물고기를 낚아채는 법을 천천히 보여주었다.

모자반을 문 씨돌이가 좀 더 떨어진 곳에서 빙빙 돌며 청해의 시선을 끌었다. 눈이 마주치자 툭 모자반을 내려놓았다.

“아, 나더러 해보라고?”

그 말에 녀석이 삐이이이, 낮은 주파수를 보냈다. 마치 학교에서 100미터 달리기를 할 때 체육 선생님이 부는 호루라기소리 같았다.

그 말인즉슨, 입 다물고 출발!

3-1. 〈보기1〉에서 설명한 비유법이 사용된 부분을 〈보기2〉에서 찾아 밑줄을 그어봅시다.

3-2. 비유법이 사용된 부분을 다시 읽고 비유법의 효과에 대해 이해해 봅시다.

---

---

---

4. 다음 영상을 참고하여 소설 속 장면을 상상해봅시다.

- ▶ 참고 동영상 1: [힐링 영상! 바다에서 마음껏 헤엄치는 제주도 '남방큰돌고래'  
<https://www.youtube.com/watch?v=AFU25b2QZt4>
- ▶ 참고 동영상 2: 제주 돌고래 핫플? 돌고래가 주기적으로 찾는 이 곳의 정체  
<https://www.youtube.com/watch?v=-pnnv8Nd6NU>

---

---

---

---

---

※ 반갑다 어휘야!

처음 만난 어휘	어디에서 쓰였나요? (어휘가 사용된 문장을 옮겨 써보세요.)	그 어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전에서 의미를 찾아 써보세요.)

1. 다음 영상을 보고 『열다섯에 곰이라니 1』의 정보에 대해 알아봅시다.

- ▶ 참고 동영상 1: 한국 청소년들에게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는 '신체 이상 증세' | [북경식]  
<https://www.youtube.com/watch?v=xlCypancECg>
- ▶ 참고 동영상 2: 18화 부글부글쌤들이 요즘 읽고 있는 책(2)\_『열다섯에 곰이라니』  
<https://www.youtube.com/watch?v=WpEvUAcUq-k>

2.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해봅시다.

다른 엄마들의 SNS 프로필 사진이 자식 사진으로 도배될 때 엄마의 프로필 사진은 늘 꽃이었다. 가끔은 먹음직스러운 케이크나 꽃 모양 라테아트가 장식된 카페라테일 때도 있었으나 영웅이 열셋이 된 이후로 형제의 사진이 올라온 적은 없었다. 아들들이 내세울 것 없다는 수준을 떠나 동네가 다 아는 사고뭉치여서가 아닐까 싶었다.

그리하여 오늘 바뀐 엄마의 프로필 사진은 찔레꽃으로, 사고를 치지도 않고 전국을 싸돌아다녀서 찾아다닐 일도 없는 어여쁜 꽃이었다. 물과 햇빛만 있으면 어디서든 잘 자라는 꽃을 좋아하는 엄마의 마음이 이해되고도 남았다.

2-1. 여러분의 SNS 프로필 사진에 대해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2-2. 여러분의 가족들은 어떤 사진을 SNS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해 두었는지 살펴보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3. <보기1>과 <보기2>를 참고하여 <보기3>에 밑줄 친 현상이 상징하는 바를 추측해 봅시다.

<보기1>

“누가 했던 이제 와 무슨 상관이냐. 다 지난 일인데.”  
“……나한테 물어는 봤어? 상관있는지 없는지?”  
그 말에 모든 가족의 이목이 영웅에게 쏠렸다.  
“왜 그래, 한영웅.”  
“내가 괜찮다고 해야 괜찮은 거지 다른 사람이 지난 일이라고 덮으면 끝나냐고.”  
그 순간 가족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아, 영웅이의 동물화는 아직 진행형이구나. 걸모습이 돌아왔다고 한들 마음이 그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면 동물화가 끝나지 않는구나.

<보기2>

냉랭해진 식탁을 두고 영웅은 자기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은 뒤 집을 나갔다. 검은색 후드에 검은 바지, 온통 검은색뿐이었다.  
어둠의 시작, 질풍노도의 시간, 진정한 사춘기의 시작을 알리는 순간이었다.

<보기3>

“엄마……. 나 사실 다시 별꿀오소리가 된 게 그날이 처음 아니었어.”  
“응?”  
“집을 여러 번 나가 있었던 것도 그걸 보이기 싫어서였어.  
“그럼 여러 번 사람이 되었던 뜻이야?”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세 번 정도 사람이 되었다가 다시 별꿀오소리로 돌아오더라고. 나도 이유를 모르겠으니까 너무 답답했어. 가족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는 않았어. 그래서 나간 거야.”  
“말을 하지, 왜 그랬어?”  
“나만 너무 이상하잖아. 사람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별꿀오소리가 되고, 하루 만에 다시 사람으로 돌아오고, 이게 몇 번 반복되니까 좀 무섭더라고. 이러다 영원히 오락가락하면서 살아야 하나. 그리고…….”  
영웅은 잠시 말을 멈추고 기다렸다.  
“버려진 날이 아니라 내 진짜 생일이 언제인지, 나는 왜 이런지 물어보고 싶었어. 그래서 물어볼 사람이 필요했어. 나랑 똑같은 DNA를 가진 사람에게, 당신도 린 시절에 이런 일을 겪었냐고. 동물화가 아니었어도 이렇게 뭔가가 계속 변했던 경험이 있었냐고.”

### 지도 TIP

이 작품에서 동물화는 사춘기를 상징한다는 것, 동물화가 끝나고 사람으로 돌아오는 것은 사춘기가 끝났음을 상징한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동물화와 인간화가 번갈아 나타나는 현상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이때 작품 속에 드러난 영웅의 행동을 근거로 제시하도록 유도하면 좋습니다.

#### 4. 여러분의 ‘잘못 들어간 미술관’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 〈보기〉

“엄마가 대학생 때 유럽 배낭여행을 떠났었는데, 그때 오스트리아에 있는 한 미술관을 찾아갔었어. 근데 길을 잘못 들어서 원래 가려고 한 미술관 바로 옆에 있던 판 미술관에 들어간 거야. 실수로 들어간 곳이었지만 입장료가 아까워서라도 그냥 봐야지 했는데, 여행을 통틀어 이 잘못 들어갔던 미술관에서의 시간이 제일 즐거웠어. 엄마는 이때의 경험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 계획과 다르게 잘못 들어갔어도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곳을 바라보느냐의 문제더라고.”

“엄마한테……, 나는 잘못 들어간 미술관인 걸까?”

“아니. 너한테 엄마가 잘못 들어간 미술관인 거지. 네 여행을 통틀어서 엄마가 너한테 그런 미술관이 되어주고 싶어.”

#### ※ 반갑다 어휘야!

처음 만난 어휘	어디에서 쓰였나요? (어휘가 사용된 문장을 옮겨 써보세요.)	그 어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전에서 의미를 찾아 써보세요.)

## 1. 다음 물음에 답해봅시다.

## 〈간단 퀴즈〉

- ① 섬은 무슨 동물로 변했습니까?
- ② 섬의 친구 이름은 무엇입니까?
- ③ 래서판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 ④ 섬의 방 이름인 '3LSS-1'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 2. 왜 이름을 '섬'으로 설정했는지 작가의 의도를 추측해 봅시다.

---



---



---



---

## 지도 TIP

섬의 일반적인 특징과 작품 속 등장인물의 특징을 연결 지어볼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정해진 답이 있는 질문이 아니므로 다양한 답이 나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세요.

## 3. 〈보기〉를 읽고 물음에 답해봅시다.

## 〈보기〉

섬은 나눠준 책을 챙겨 첫 번째 특별 조류 수업에 참석했다.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핫대에 앉아 있는 수많은 새가 일제히 섬을 돌아봤다. 지지배배, 짹짹, 까악까악. 여러 소리가 섞여 있었지만 하나같이 섬을 보고 수군거리는 목소리였다.

“재네, 부리만 새로 변한 애.”

“다 변하지도 않았는데 여기 올 필요가 있나?”

“재는 우리같이 특별한 새가 아닌데 너무 급이 떨어지지 않아?”

구관조와 두루미, 공작이 잣까마귀 섬을 폼하하는 말을 주고받고 있었다. 구관조가 정말 관이 아홉 개고 공작새가 정말 공작인 줄 아나. 섬은 속으로 혀를 찼지만 내색하지 않고 책을 펼쳤다. (중략)

“선생님, 새로 들어온 학생은 반인반수도 아니고 입만 부리로 변했는데 동물화 수업을 들어도 되나요? 다 변했을 때 새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저희야 상관없지만 수업을 다 들었는데 다른 동물이 되면 저 학생만 손해고요.”

걱정해 주는 척 돌려 까는 대목에서 피식 웃음이 새어 나왔다. 누가 새 아니랄까 봐 텃세 부리기는. 섬은 어이가 없었지만 꼭 참고 대응하지 않았다. 통역 앱을 통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선생님이 말했다.

“글쎄, 몸 전체가 변하는 걸 봐야 확실하겠지만 부리만 보면 다른 동물은 아닙니다. 단지 가금류, 수조류, 육조류이지만 달라질 뿐이죠. 아, 맹금류일 수도 있고요.”

“새는 잣까마귀라고 하던데 흔하디흔한 까마귀라면 특수 동물화 수업에 어울리지 않잖아요. 이 캠프가 돈만 낸다고 다 들어올 수 있는 캠프도 아니고, 줌 수준이 안 맞아서요.”

그 말에 섬은 진심으로 반박하고 싶었다. 아니거든, 비싼 돈만 내면 다 받아주고 심지어 환불도 해주지 않아서 내가 여기 있는 거라고.

**3-1. <보기>에 드러난 새들의 행동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는지 친구들과 이야기 나눠봅시다.**

---

---

---

---

**3-2. <보기>에서 드러난 새들의 행동을 인간의 삶에 대입해 생각해 봅시다.**

---

---

---

---

**지도 TIP**

누군가를 배척하고 무시하는 행동을 목격한 경험이나 직접 당한 경험 등을 나눌 수 있도록 유도해 주세요.

4. <보기>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보기>

섬은 정훈의 이마에 딱밤을 놓으며 말했다.

“이 쥐방울만 한 놈이 못 하는 말이 없네! ‘빨리 늙고 싶어요’가 아니라 ‘잘 자라고 싶어요’야! ‘형이 부러워요’가 아니라 ‘형도 뚜껑 열고 보면 똑같겠죠’야. 좋은 번역기를 쓰란 말이야! 네 마음, 네 생각을 네가 잘 번역해 줘야 잘 사는 거라고 그랬어.”

“누가요?”

“몰라. 여기 오는 길에 잠깐 들른 휴게소에서 만난 이상하게 생겨 먹은 오소리 같은 놈이. 자기 엄마가 그랬대.”

4-1. 섬이 정훈에게 한 조언(밑줄 친 부분)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는지 정리해 봅시다.

▶ 적절한 조언이다. 왜냐하면

---

---

---

▶ 적절하지 않은 조언이다. 왜냐하면

---

---

---

4-2. ‘이상하게 생겨 먹은 오소리 같은 놈’은 누구를 말하는지 생각해봅시다.

---

---

---

---

---

※ 반갑다 어휘야!

처음 만난 어휘	어디에서 쓰였나요? (어휘가 사용된 문장을 옮겨 써보세요.)	그 어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전에서 의미를 찾아 써보세요.)

## 1. 괄호를 채워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 ① 불파이톤은 인간이었을 때, ( )이었기 때문에 몸무게에 예민했다.  
 ② 특수 동물화 캠프에서는 ( )와/과 ( )을/를 통해 속성으로 사람이 될 수 있었다.  
 ③ 조류과 선생님은 정훈의 ( )였다.  
 ④ 섬은 대청봉에서 ( ) 남매를 만났다.

## 2. 해돋이를 본 경험에 대해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 〈보기〉

‘어제도 떴던 해’라고 말했으나 막상 붉게 떠오르는 태양을 보자 벽찬 감동이 밀려왔다. 태양이 어둠을 깨고 세상을 물들이며 모든 만물을 눈뜨게 하는 광경 앞에 많은 생각이 마음을 스쳐 갔다. 레서판다 정훈에게 좋은 번역기를 써야 한다고는 했지만 섬 자신도 지금 이 순간의 감정을 온전히 번역해 낼 수 없었다. 어둠을 뚫고 힘든 새벽 산행을 하는 사람들이 비로소 이해되는 듯했다.

---



---



---



---



---

## 지도 TIP

해돋이를 본 경험이 있는 학생이 적다면 다음 영상을 보고 가고 싶은 장소를 선정하게 하는 활동으로 대체해 주세요.

- ▶ 참고 동영상 : 해돋이는 무조건 여기! | 안가면 후회하는 국내 해돋이 명소 BEST 7  
<https://www.youtube.com/watch?v=ldwys92bUHM>

3. <보기2>를 고려하여 <보기1>의 밑줄 친 현상의 상징적 의미를 추론해 봅시다.

<보기1>

“하루 한 시간 이상 해발고도 1200미터 이상에 올라 삼림욕을 하면 동물화됐던 아이가 빨리 사람으로 돌아온다는 학계의 보고가 있었대요.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산에서 생활하던 새나 산짐승이 빨리 사람이 되는 걸 역추적해서 그런 사실을 알아냈대요. 그래서 이 캠프가 설악산 아래에 있게 된 거고요. 동물화, 인간화 모두에 적용되는 거래요.”

<보기2>

어둑하던 사위가 밝아져 어느새 아침이 되었다. 북적이는 정상에는 부모를 따라온 동물화 아이들도 더러 보였다. 1708미터 대청봉 표지석 앞에서 사진을 찍는 사람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어찌면 그 1708미터가 이곳에 올라오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을 묵묵히 견디는 시간을 의미하지 않을까 하고 섬은 생각했다.

---

---

---

---

---

**지도 TIP**

이 작품에서 동물화는 사춘기를 상징한다는 것을 고려하여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유도해 주세요.

※ 반갑다 어휘야!

처음 만난 어휘	어디에서 쓰였나요? (어휘가 사용된 문장을 옮겨 써보세요.)	그 어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전에서 의미를 찾아 써보세요.)

## 1. 작품을 읽고 맞는 것에 O, 틀린 것에 X를 해봅시다.

- ① 북한 최초의 동물화가 나타난 것은 평양이었다. (O / X)
- ② 길영, 길애 남매는 수의축산대학의 장철주에게 괴롭힘을 당했다. (O / X)
- ③ 김책공업종합대학의 교수였던 길영, 길애 남매의 아버지는 사상범으로 체포되었다. (O / X)
- ④ 섬은 큰부리까마귀가 길영, 길애 남매를 공격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었다. (O / X)

## 2. 다음 영상을 보고 북한의 식량난의 심각성에 대해 알아보시다.

- ▶ 참고 동영상: (분노주의) 세계 최악의 인권 유린! 북한 아이들이 거리로 내몰려 굶주리는 이유 | 이제 만나러 갑니다 154회  
<https://www.youtube.com/watch?v=6LUdmJcbhWs>

## 3. 다음 영상을 참고하여 고전문학에서 금강산은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 〈보기〉

몇 시간을 날아 마침내 금강산에 도착했을 때 오누이는 자신들이 헤맨 봉우리가 금강산의 절경이라는 내금강과 외금강 일대임을 알았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폭포들은 아버지가 말하던 문학 작품 속 그 폭포들이었다.

조선의 내로라하는 명문장가 선비들은 이 금강산을 유람하는 것이 일생일대의 소원이었다고, 언젠가 아버지가 말했었다. 그래서 임금이 전라도 섬이나 제주로 유배를 보낼지언정 험하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금강산으로는 유배를 보내지 않았다고도 했다. 언뜻 생각하면 사지처럼 생각되었으나 실상은 누구나 동경해 마지않는 곳, 죄인이 가장 바라 마지않는 곳에 귀양살이를 보내 재미있게 살다 오라 할 아량 넓은 임금은 없었던단다.

- ▶ 참고 동영상 : 한양에서부터 금강산까지 | 관동별곡(1) | 10 CUT 고전시가  
<https://www.youtube.com/watch?v=AaUMvcZZnSs>

4. <보기>에 제시된 북한의 랜드마크에 대해 조사해 발표해 봅시다.

<보기>

울산바위를 거쳐 미시령 계곡으로 내려가면 있는 조그만 리조트라는 것도 평양의 내로라하는 류경 호텔이나 평양호텔을 생각하면 그리 대단치 않아 보였다. 평양에도 수십 층 높이의 고층살림집(아파트)이 많았다. 세계에서 가장 흉물스러운 건물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욕을 들어먹던 류경호텔도 비록 여전히 완공 전이지만 그럼에도 평양의 상징이 되었다.

평양에도 영광거리의 역전백화점이나 광복거리의 만경대 학생소년궁전, 금성거리의 주석궁 등 도시 느낌이 물씬 풍기는 장대한 위용의 건물이 있었다. 서울이 아닌 지방 소도시라 할지라도 남한이라는 곳도 그리 대단하지는 않구나 생각이 들었다.

---

---

---

---

※ 반갑다 어휘야!

처음 만난 어휘	어디에서 쓰였나요? (어휘가 사용된 문장을 옮겨 써보세요.)	그 어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전에서 의미를 찾아 써보세요.)

1. '북조선 잣까마귀 남매'에 등장하는 북한말에서 모르는 단어를 찾아 단어장을 만들어 봅시다.

북한어		남한어
	→	

### 지도 TIP

다음 두 사이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 통일부 북한용어사전: <https://unibook.unikorea.go.kr/data/dictionary>
- ▶ 글동무: <https://www.geuldongmu.org/>

2. 여러분이라면 <보기>에 밑줄 친 길영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했는지 생각해 봅시다.

### <보기>

“남조선 에미나이들은 어려서부터 다 잘 알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니까 뭐?”

“니…… 키이수해 본 적 있네?”

“키이수?”

“그래, 키이수.”

섬은 무슨 소리인가 눈을 깜빡깜빡하며 생각에 잠겼다. 속이 답답한 길영이 소리쳤다.

“입술 박치기까지 해봤다면서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거이간, 몰라서 모르는 거이간? 아니, 남조선 애새끼들은 홀라당 까져서리 소학교부터 손잡고 키이수한다질 않아. 텔레비만 틀면 아침부터 밤까지 애새끼부터 아즈마이까지 키이수질 하는 게 예사라고 장마당에서 다 들었다야.”

품, 섬은 자신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오려는 걸 참느라 애를 먹었다.

“그렇지, 남조선에서는 손키이수, 볼키이수, 눈키이수 많이 하지.”

“니 나한테 그거 좀 가르쳐 줄 수 있네?”

### 3. 밑줄 친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써봅시다.

- ▶ 참고 동영상 : [성장문답] 나답게 살고 싶은 사람들이 반드시 들어야 할 대담  
<https://www.youtube.com/watch?v=6mfg06dVIUc>

길영을 만나기 위해 금강산을 넘어서 돌아오는 길에 길애는 생각했다. 사람답게 잘 산다는 게 뭘까. 어찌 살아야 후회 없이 잘 살 수 있을까. 단지 배부르고 등 따뜻하게 살아간다면 그게 행복한 삶일까.

### 4. 오누이의 선택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친구들과 이야기 나눠봅시다.

새벽녘 깊은 잠에서 깨어난 길애는 조심스레 새장을 나와 열린 창틀 위에 앉았다. 밝은 반달이 떠 있었다. 그 곁에는 길영이 함께였다. 잠에서 깬 섬은 달을 보고 있는 오누이의 뒷모습을 보며 그들이 함께 떠나기로 했음을 알았다. 징집의 8년이 기다린다고 해도 기약 없는 이별 대신 함께할 이별을 택한 모양이었다.

“정말 갈 거야?”

“가야디.”

“돌아가면 다시 꽃제비가 되는데도?”

“몸고생 없는 삶은 여기 있는데 마음고생 덜한 삶은 저쪽에 있다. 둘 다 겪어보니 가장 중요한 게 뭘지 알겠어. 아바디가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라 췌어. ‘삶’은 ‘사람’을 줄여 쓴 말이렸고. 아바디도, 길영이를 기다리는 근영이도, 우리를 걱정하는 장철주 동무도 다 그곳에 있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답이 나오지 않겠어. 안 기러니, 길영아?”

그 말에 길영이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 ▶ 북한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내린 것에 동의할 수 없다. 왜냐하면

- ▶ 북한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내린 것에 동의한다. 왜냐하면

1. 해녀의 대화를 참고하여 다음 말을 제주어로 바꾸어 봅시다.

돌고래	→	
빨리빨리		
어디로		
모두		
정말		

2. 다음 영상을 보고 물음에 답해봅시다.

- ▶ 참고 동영상 : [이슈톡] 돌고래, 신기한 '해파리 저글링' 묘기 (2019.08.13/뉴스투데이/MBC)  
<https://www.youtube.com/watch?v=J8NBpFbyOHE>

2-1. 영상을 참고하여 <보기>에 제시된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봅시다.

### <보기>

청해는 그들 앞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말을 건네려는 바로 그 순간, 해파리의 몸이 두둥실 하늘로 떠올랐다. 떠올랐다기보다 누군가에 의해 공처럼 내던져졌다는 표현이 옳았다. 해파리를 공처럼 던진 것은 원담 주변에서 씨돌이를 돌보던 다른 돌고래 무리였다.

놀란 청해가 소리쳤다.

“안돼!”

그러나 돌고래 무리는 청해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 그들은 계속 해파리를 청해 쪽으로 던졌다.

“아이고, 사람 죽어! 섬아, 나 좀 살려줘.” (중략)

“저 돌고래가 미쳤나 봐.”

“나 어디선가 들은 거 같아. 돌고래가 해파리를 공처럼 가지고 논다고.”

“뭐, 공? 재네 정말 미친 거 아니야?”

“먹는 게 아니고 서로 공생이라고 했어. 근데 넌 진짜 해파리가 아니니까 뜯어말린 거야.”

“방금 재네가 날 던지고 논 게 네 눈에는 공생관계 같아 보여?”

“돌고래가 던져주면 해파리는 깊은 물속으로 가라앉으면서 촉수에 걸린 애들을 손쉽게 먹이로 삼는다더라.”

“나 그냥 집 안 수조로 돌아가는 게 나올지도 모르겠다.”

“언제는 답답해서 미칠 것 같다며. 죽을 것 같다며?”

“그때는…… 그 세상이 전부 같아 보였지. 엄마가 하는 말이 다 뭘 모르고 하는 소리로만 들렸고.”

2-2. 돌고래가 해파리를 던지는 행위에 대해 영상에서 제시한 이유와 소설에서 제시된 이유 간의 차이점을 정리해 봅시다.

▶ 영상에서 제시한 이유 :

---

---

---

▶ 소설에서 제시한 이유 :

---

---

---

3. 영상을 보고 느낀 점에 대해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 참고 동영상 :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만나러 간 남방큰돌고래 언제까지 볼 수 있을까?  
<https://www.youtube.com/watch?v=EC2u8SFw8eM>

한참을 쫓고 쫓기는 숨바꼭질을 하다가 돌섬 인근에 다다라서야 청해는 겨우 씨돌이를 따라잡았다. 씨돌이의 등지느러미 뒷부분부터 꼬리까지 커다란 그물이 칭칭 감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낚시꾼들이 함부로 버리는 접이식 낚시 그물인 걸 보면 사람 가까이 다가갔다가 봉변을 당한 듯했다.

---

---

---

---

4. 마지막 장 제목을 '모두의 인간화'라고 한 작가의 의도를 추측하여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

---

---

---

---

**지도 TIP**

소설의 내용을 근거로 말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세요.

※ 반갑다 어휘야!

처음 만난 어휘	어디에서 쓰였나요? (어휘가 사용된 문장을 옮겨 써보세요.)	그 어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전에서 의미를 찾아 써보세요.)

**[수업 준비]**

- ① 모둠 구성하기 (2~4명)
- ② 준비물 배부하기(모둠 당 전지 1장, 색연필 1세트, 매직 1세트, 주사위)
- ③ 역할 분담하기(모둠장, 발표자, 작성자)

**지도 TIP**

준비물은 태블릿 등의 전자기기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1. 질문지 만들기**

- ▶ 모둠원들과 의논하여 질문지를 완성합니다.
- ▶ 친구들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을 생각해 봅시다.

**나를 알아보는 질문들**

1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2	당신의 이름은 무슨 뜻입니까?
3	MBTI는 무엇입니까?
4	
5	
6	
7	
8	
9	
10	

## 2. 질문지 작성하기

- ▶ 완성된 질지에 대한 각자의 답을 씁니다.
- ▶ 작성이 완료되면 모둠장에게 질문지를 제출합니다.
- ▶ 모둠장의 진행으로 질문지를 함께 읽으며 모둠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 3. 친구와 어울리는 동물 찾기

- ▶ 주사위를 굴러 나온 숫자에 해당하는 동물류를 확인합니다.

1~3	4	5	6
길짐승	날짐승	물짐승	기타 (어류, 곤충류 등)

- ▶ 친구의 특징을 고려하여 친구와 어울리는 동물에 대해 토의하고 아래 표를 작성합니다.  
(예) 친구가 굴린 주사위가 3이라면 길짐승 중에서 친구와 가장 잘 어울리는 종을 하나 고르는 토의를 하고 아래 표를 작성합니다.
- ▶ 토의 결과 작성은 작성자가 말합니다.

### 우리 모둠 동물화 정리표

이름	동물류	동물명	이유
영수	길짐승	곰	곰처럼 느리다. 덩치가 크고 힘이 세다.
혜린	물짐승	돌고래	자유로운 영혼이다. 똑똑하다.
민영	해파리	해파리	늘 흐물흐물해 힘이 없다. 거짓말을 못해 속이 흰히 보인다.

## 4. 질문지 작성하기

- ▶ 모둠원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전지를 꾸밉니다.
- ▶ 모둠원 이름, 동물명, 선정한 이유가 잘 드러나도록 하고 그림이나 사진 등 그밖에 내용은 자유롭게 추가합니다.
- ▶ 발표자는 다른 모둠에게 모둠원을 어떻게 소개할지 생각하고 연습합니다.(소개시간 1~2분)

## 5. 동물로 모둠원 소개하기

- ▶ 학급 중 절반의 모둠은 소개하는 역할을, 나머지 절반의 모둠은 소개받는 역할을 맡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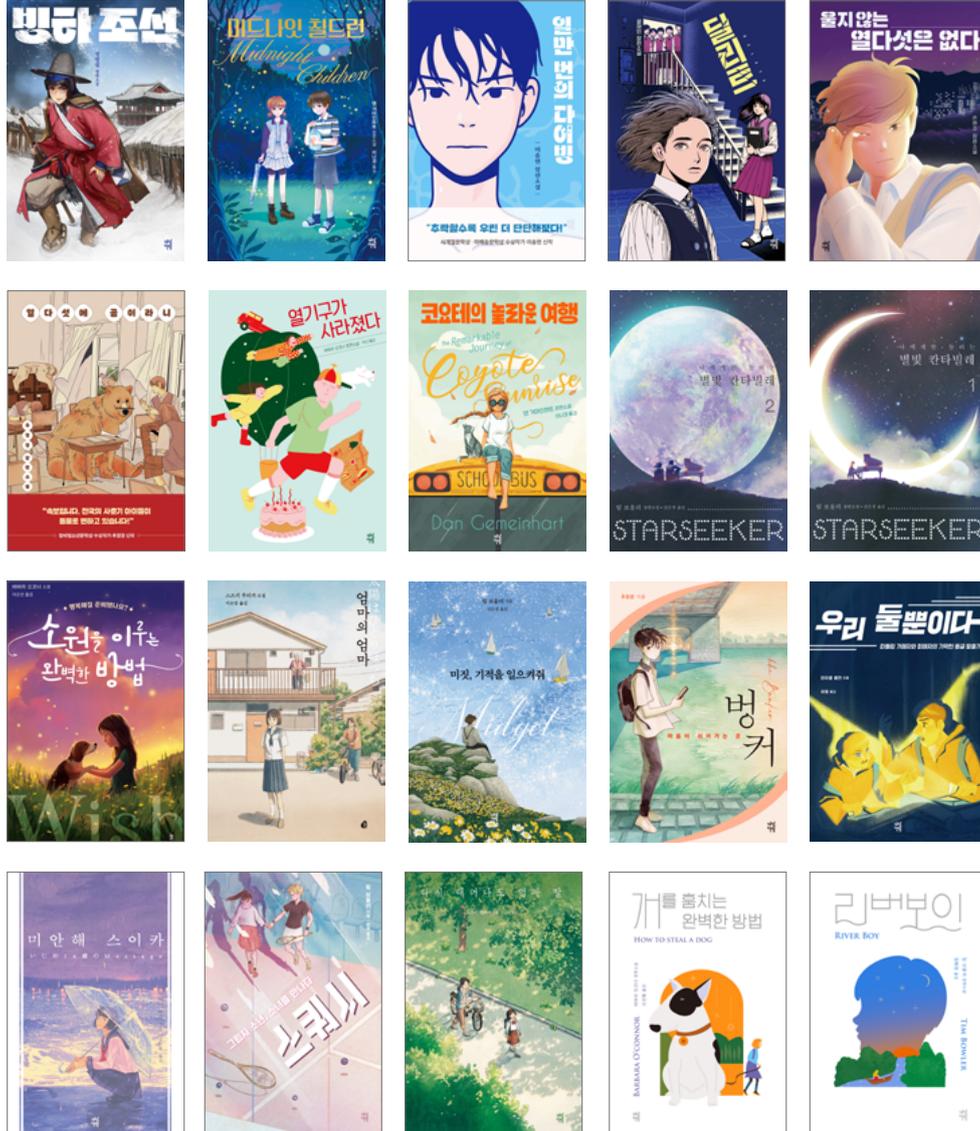
- ▶ 소개받는 역할을 하는 모둠은 선생님의 출발 신호에 맞춰 소개하는 역할을 하는 모둠 중 하나의 모둠 쪽으로 가서 소개를 듣습니다.
- ▶ 소개시간(1~2분)이 지나고 선생님의 출발 신호가 들리면 다른 모둠으로 이동해 그 모둠의 소개를 듣습니다.
- ▶ 모든 모둠의 소개를 들었으면 소개하는 역할과 소개받는 역할을 교대하여 반복합니다.

#### **지도 TIP**

소개 활동이 마무리되면 자리를 정돈한 후 느낀 점을 발표하거나 소감문을 작성하는 활동으로 수업을 마무리합니다.

# 다산책방 청소년문학

다산책방 청소년문학은 오늘날의 십 대가 마주한 고민과 시대를 넘어서는 질문을 이야기로 풀어낸 시리즈입니다. 깊은 울림과 감동을 전하고 읽는 재미까지 선사하는 작품을 엄선해 선보입니다.



- |                                  |                                |
|----------------------------------|--------------------------------|
| 20 빙하 조선 정명섭 장편소설                | 10 소원을 이루는 완벽한 방법 바바라 오코너 장편소설 |
| 19 미드나잇 칠드런 댄 거마인하트 장편소설         | 09 엄마의 엄마 스키 루리카 장편소설          |
| 18 일만 번의 다이빙 이송현 장편소설            | 08 미짓, 기적을 일으켜줘 팀 보올러 장편소설     |
| 17 딜리트 설재인 장편소설                  | 07 빙커: 마음이 쉬어가는 곳 추정경 장편소설     |
| 16 울지 않는 열다섯은 없다 손현주 장편소설        | 06 우리 둘뿐이다 마이클 콜먼 장편소설         |
| 15 열다섯에 곰이라니 추정경 장편소설            | 05 미안해 스이카 하야시 미카 장편소설         |
| 14 열기구가 사라졌다 바바라 오코너 장편소설        | 04 스쿼시 팀 보올러 장편소설              |
| 13 코요테의 놀라운 여행 댄 거마인하트 장편소설      | 03 다시 태어나도 엄마 딸 스키 루리카 장편소설    |
| 12 나에게만 들리는 별빛 칸타빌레 2 팀 보올러 장편소설 | 02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바바라 오코너 장편소설  |
| 11 나에게만 들리는 별빛 칸타빌레 1 팀 보올러 장편소설 | 01 리버보이 팀 보올러 장편소설             |